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5년 연구·활동 보고



(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다가옵니다. 다가올 한 해는 덜 걱정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며 2015년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한해는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희망과 꿈조차 가지기 힘든 절망적인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OECD 각종 지표에서 꼴찌를 차지한 항목이 50개에 육박하는 힘겨운 2015년을 살아온 민중들을 어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해 곳곳하게 견뎌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의 외마디 고통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끊겨 생계가 어려워져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 애쓰는 그런 날의 연속입니다. 암묵적 방조 속에서 폭압과 독선의 질주가 계속됩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질수록 점점 더 가속화 되어갑니다. 박근혜 정부의 행정에서 어렵게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는 밀어내고, 개인 가족사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노골적인 움직임은 느끼는 것이 비단 저 뿐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과 자본이라는 튼튼한 배경 아래 수구와 보수를 결집시킨 집권층의 지배구조는 얼핏 광고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시작하는 자본유출과 부채의 증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어려운 지경까지 내몰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수출경쟁력 하락의 여파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 머잖아 우리 앞에 곧 닥치리라 예상됩니다. 총체적인 변화 없이는 빠져나가기 힘든 난국입니다.

새로운 사회로의 진입은 기존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 역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진 사람들과 함께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이 전면화 될 때 역사는 변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하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은 이미 만연해져 있습니다. 개혁진보진영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경제적으로 어렵고 엄중한 상황임에도 이를 풀어야 할 사람들마저 내재화된 경쟁의식으로 분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중의 삶보다는 자신의 지위가, 전체보다는 부분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열정과 학습 대신 관성과 습관, 신뢰와 협동 대신 폭력과 술수만이 난무합니다. 수구 정권에 맞서 진보진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으로 나서야하지만 오히려 갈등 구도에만 골몰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그냥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열정과 학습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협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사회에 대해 공부합시다. 앞으로 다가올 2016년, 그리고 2017년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일정 속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5년 못다 한 일들 포기하지 마시고 전력을 다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꿈꿔온 새사연 회원들이 계셔서 저희 역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어려운 길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손 부여잡고 역사의 현장에 계속 있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새해에는 좋은 꿈 꾸십시오!

항상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장 정경진 드림



1. 2015년 연구보고

1.1 정기연구

2015년 새로운사회를연구원은 매년 초 발행하는 '전망보고서'를 필두로 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이슈진단', 연구된 내용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 발행하는 주제별 E-보고서인 '잇: 북' 그리고 매주 다양한 주제로 연구원들의 의견을 펼치는 장인 '위클리 펀치' 총 4가지 형태의 정기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부연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달의 보고서>

월	보고서	저자
1월	[전망보고서]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연구위원
2월	[이슈진단]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①자본주의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연구위원
3월	[이슈진단] 아동학대 예방위한 CCTV 설치? '효과 미미할 것'	최정은 연구원
4월	[이슈진단]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5월	[이슈진단]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부원장
6월	[이슈진단]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연구원
7월	[이슈진단]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강세진 연구이사
8월	[이슈진단] 2015년 7월 노동시장 분석 : 늘어나는 여성 노동자, 계속되는 성별 격차	김수현 연구원
9월	[이슈진단] 2015년 8월 노동시장 분석 : 20대 청년 니트(NEET)의 개념과 규모	김수현 연구원
10월	[이슈진단]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가능성 탐색 (3) 독일 하노버시 마더센터 탐방	배지영 외부필진
11월	[이슈진단] 생활비, 어디부터 줄일까요?	이정아 연구위원



전망보고서 7편



이슈진단 52편

<이 달의 칼럼>

월	칼럼	저자
1월	요즘 청년들에게 '4가지'가 없는 이유	김수현 연구원
2월	전세의 추억	강세진 연구이사
3월	정부의 '상자 뺏기' 게임... 서민은 결국 '짱'	강세진 연구이사
4월	오래 산다는 건 '재앙'인가?	최정은 연구원
5월	공포마케팅으로 '구라'치지 마라	이상동 부원장
6월	메르스와 유언비어, 그리고 신뢰의 메커니즘	이은경 연구위원
7월	이윤 아닌 소득으로 '소비마차' 끌어라	김수현 연구원
8월	감정노동 일기	송민정 연구원
9월	늘지 않는 예산안에 '복직 짜맞추기'	최정은 연구원
10월	올바른 역사교과서? 추는 이미 기울어졌다	송민정 연구원
11월	청년정책의 뉴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이상동 부원장



잇: 북 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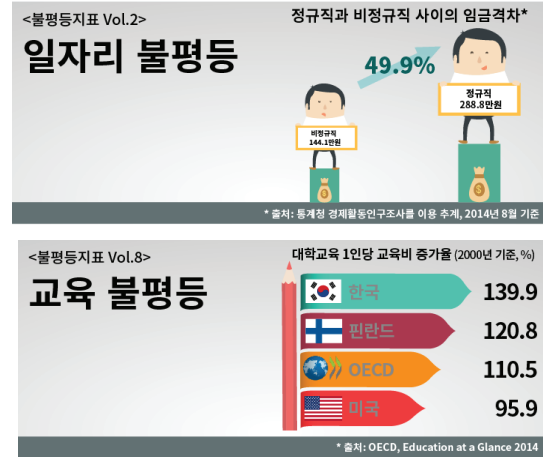
위클리펀치 48편



1. 2015년 연구보고

1.2 기획연재

2014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대한민국이 알려주지 않는 불평등 보고서 '분노의숫자' 를 출간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보다 업데이트된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대한민국 불평등 지표'를 홈페이지에 발행, 한국의 불평등을 가장 최신 숫자로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과 그래프로 표현하였습니다. 교육, 건강, 노인, 에너지, 보육, 여성, 소득, 일자리 총 8개의 주제로 자세한 내용은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외부필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내부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지식인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외부에서 연구하면서 새사연과 함께 하는 '박형준', '이은경' 연구위원께서 전망보고서와 불평등지표 등에서 경제와 복지 분야로 함께 했으며 '이정아' 연구위원은 몇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통해 노동경제를 보다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요즘 너무나도 활발히 활동하는 새사연의 어깨동무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의 저자 박세길 작가, 마더센터 연구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된 멀리 독일에서 사는 '배지영'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든 외부 필진분들께 감사드리며 새사연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항상 환영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외부필진 연구>

보고서제목	작성자
약엔, 강위안, '슈퍼달라'의 시대 도래?	박형준
복지없는 노후는 재앙이다	이은경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①자본주의다양성모델	박형준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노인 불평등	이은경
건강 불평등	이은경
<불평등지표 Vol.8> 교육불평등	이은경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생명과 생활 사이	이정아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돌음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동아시아주거복지컨퍼런스후기(1)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민달팽이유니온
동아시아주거복지컨퍼런스후기(2)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에 있다	민달팽이유니온
죽을 때까지 저축해야 하는 이유	이정아
[잇:북] 명절, 차 안에서 읽는 "청년들을 위한 한국현대사"	박세길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가능성 탐색 (3) 독일 하노버시 마더센터 탐방	배지영

1.4 연구용역

<2015년 새사연 수행 연구용역>

연구 용역	발주처	연구 용역	발주처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	경기연구원	청년뉴딜사업 성과지표 개발연구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마포구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통신산업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SKB 노동조합
만리동 협동조합형 공동주택 조합설립 및 입주지원용역	SH공사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가능성 탐색-소금꽃마을 마더센터 만들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별정우체국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초연구	별정우체국연구회	협동조합형 공동주택 후속조치	SH공사
성남시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 방안	성남시	화곡동 협동조합형 공동주택 조합설립 및 입주지원용역	SH공사
성남청년배당	성남시		



2. 2015년 미디어회원 보고

2.1 확!新![확:신]광장

새사연은 2015년 회원사업 테마를 조직,사람,사회,정치,미래 등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新![확:신]으로 잡았습니다. 총 7회의 <확!新![확:신]광장> 을 통해 많은 회원들, 시민들과 만나, 함께 세상을 바꾸는 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2015 확!新![확:신]광장 진행 내용>

일정	주제	내용
1월 29일	김상곤에게 묻는 내일의 교육	새사연의 2015년 첫 행사, "김상곤에게 묻는 내일의 교육" 토크강연이 상수역 부근 오피스커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하셔서 결점투성이인 공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4월 17일	증세'있는'복지,법인세의 모든 것	복지 재원마련, 왜 하필 법인세인지 세수 현황 및 근거 등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동네 나무그늘에서 회원분들과 함께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12일	교육전문가 '이범'의 통념과 금기를 깬 진보적 교육 제안!	홍대 카톨릭청년회관에서 <교육전문가 '이범'의 통념과 금기를 깬 진보적 교육 제안>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젠다가 부재하는 진보교육의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 이범 부원장이 제안하는 5대 혁신안에 대하여 들어보았습니다.
7월 17일	한 여름밤의 독서모임	"한국 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저자 박세길 작가께서 회원들을 초대하여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가져보았습니다.
9월 23일	기자는 왜 기레기가 되었는가?	홍대 가톨릭청년회관에서는 '언론'을 테마로 다섯번째 확산광장이 열렸습니다.<기자는 왜 기레기가 되었는가?>라는 타이틀 아래 김도년 기자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과 함께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10월 15일	주치의의 모든 것	홍대가톨릭회관에서 '우리동네 아는 의사 주치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고병수 이사께서 강연자로 수고해주셨으며,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이 모여 주치의에 대한 밀도 높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11월 17일	청년문제 또 다른 지표, 청년 니트(NEET)	홍대가톨릭회관에서 '청년문제 또 다른 지표, 청년 니트(NEET)'라는 주제로 확산광장이 열렸습니다. 새사연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도 많았던 행사였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돋보였습니다.



2. 2015년 미디어회원 보고

2.2 새사연 아카데미

새사연은 대학이 ‘학문의 상아탑’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잃고 점점 자본에 종속되어가는 요즘, 미국의 ‘뉴스쿨’과 같은 자발적 시민 대학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뉴스쿨’을 표방하는 배움의 공동체, <새사연 아카데미>를 출범하였습니다.

<새사연 아카데미>의 강의들은 ‘종합연구원’을 표방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새사연의 연구 성과를 밑거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현대사, 부동산’ 강이가 스타트업 강의로 개설되었으며 8월~9월 2개월동안 약 40명의 회원분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박세길의 한국 현대사 커리큘럼>

회차	날짜	주제
1회차	8월 21일	청년의 현실 대한민국의 미래
2회차	8월 28일	진보개혁세력의 잃어버린 20년
3회차	9월 4일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 세대는?
4회차	9월 18일	기रो에 선 한국경제와 새로운 선택 & 극적인 드라마의 땅 한반도의 미래

<부동산 뉴패러다임과 내집 마련 전략 커리큘럼>

회차	날짜	주제
1회차	8월 19일	부동산 시장의 변화
2회차	8월 26일	2015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의 이해
3회차	9월 2일	공공임대 바로 알기
4회차	9월 16일	민간임대시장에서 떳떳하게 살기
5회차	9월 23일	협력해서 주거불안 해결하기

2.3 미디어 현황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님들께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새사연은 PC/모바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매주 발행되는 뉴스레터, 블로그, 페이스북,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올 한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회원님들과 새사연이 만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보도
총 108회



뉴스레터
총 62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
총 29,934명



블로그 방문자 수
총 139,236명



페이스북 좋아요 수
총 9,853명

<기간: 2015.01.01 ~ 2015.11.30>



3. 새사연 Hot Issue

3.1 새사연 새사람

올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는데, 그 속에서도 회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을 엄선하였습니다. 그 첫번째 소식은 새사연 연구센터 경제 파트에 젊은피가 수혈되었다는 것입니다. 새사연 새사람 송민정 연구원을 회원님들께 소개합니다.



<새사연 새사람 송민정 연구원>

분야	제목
노동, 통계지표	감취진 제 3의 지표, "체감 실업률"
노동, 빈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 빈곤층'
노동 (서비스)	서비스 판매 종사자를 통해 본 감정노동
빈곤	빈곤의 정의와 측정
청년, 노동	니트족 양산하는 '재탕' 청년정책
노동	'더 싸게, 더 많이'가 불러온 것들
노동 (비정규직)	외나무 다리 위에서 비틀거리는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 (서비스)	감정노동 일기
청년, 노동	청년창업, '토양 마련'이 우선이다
여성, 노동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 되었는가
국정 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추는 이미 기울어졌다
국정 교과서	앞당겨진 확정고시, 밀려난 민주주의
청년, 노동	인턴십? '열정같은 소리하고있네'

<2015 송민정 연구원 연구물>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근무한 송민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특징은 충남 아산에서 KTX로 출퇴근하는 장거리 통근러입니다. 그래도 출퇴근 시간은 상암동에서 청담동 가는 것보다 시간은 단축되었고, 서울 주요지역의 원룸 한달 월세보다 교통비가 적게 나옵니다. KTX는 요망하네요.

Q. 새사연에 대한 첫 인상은 어땠나요?

A. 작지만 알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서 더 많은 수의 연구자가 상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소수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생활인에 근접한 연구를 주창하며 배우고 품고, 표현하고 나누는 것을 지향하는 모습을 통해 '적극적인 지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올 한해 새사연에서 주로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A. 전공했던 노동경제학 분야를 위주로 비정규직, 서비스직, 여성, 청년 등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빈곤과 국정교과서 관련 이슈도 시기에 맞게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Q. 지내면서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A. 박세길 선생님의 책 "한국 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이 발간 된 후에 가진 독서 토론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서토론회가 저에게는 새사연 회원 분들과 가깝게 만난 첫 행사였거든요. 20대부터 50대까지 여러 연령대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모여서 치킨 앞에 둘러앉아 편안하면서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회원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 살짝이나마 엿볼 수 있었답니다.

Q. 내년에는 어떤 연구를 계획하시나요? 또 어떤 다짐이 있나요?

A. 내년에는 올해보다 좁고 깊게 연구해 보고 싶은데, 주제는 청년과 고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낼 때마다 힘들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저도 청년입니다. 또한 과거 취업준비생으로 불합격의 통보를 받는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용문제는 쉽게 완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연구하면서 청년과 고용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Q. 송민정 연구원이 만들고 싶은 새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A.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어떠한 성과를 이룰 때 노력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의 많은 부분은 양극화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극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고 듣기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이 좁혀졌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소중한 새사연 회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새사연에서 회원분들 및 세상과의 소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많은 회원분들을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계획하신 것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3. 새사연 Hot Issue

3.2 분노의숫자 대만 진출

기억하시나요?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2014년 교보문고 정치경제 영역 3위 (일주일 정도?) 에 빛나는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분노의숫자’ 바로 그 ‘분노의숫자’가 대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하반기 대만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하였으니, 조만간 대만서점에서 만날실 수 있습니다. 십여권의 책을 출간 했지만 해외 계약은 처음이라, 새사연 사무실도 잠시 흥분 속에 머물렀었네요. 이 모든 영광을 매 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새사연 회원님들께 바칩니다.



4. 2016년 새사연 계획

2016년 새사연은 연구, 미디어의 양 분야 모두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저변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연구센터에선 연구위원제, 기고활용 등 외부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연구원 안팎으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기존 새사연 자원으로는 소화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미디어센터에서는 작년에 출범한 <새사연 아카데미>의 명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016년에 열릴 <새사연 아카데미 2기>는 보다 탄탄하고 세밀한 기반 조직의 형성을 위해 다분야 소모임 체제로 전환됩니다. 새사연 회원 및 일반대중의 욕구에 따라 열린 소모임이 개설되며, 새사연 상근자들이 직접 모임지기로 나서 학습 뿐 아니라 친교까지 아우르는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제, 노동
청년,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부동산
마을, 돌봄
복지, 의료

연구분야

연구 역량강화

연구위원제도, 공동 프로젝트 등
외부 연구 인력 활용
'연구방법론'등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진행



홈페이지 및 미디어 플랫폼
활용을 통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확산

연구확산

회원 접점

多분야 소모임 체제를
기반으로
새사연 아카데미 시즌2



5. 2015년 회원 유출입 및 회비보고

5.1 새사연 회원 유출입

분류	총합		비고
준회원 (무료회원)	11526명		525명 증가 (2014년 12월 대비)
정회원 (유료회원)	912명		4명 증가 (2014년 12월 대비)
회비	10월	16,382,000	973,843원 감소 (2014년 평균 대비)
	11월	17,829,880	
	2015년 평균	16,912,527	
2015년 신규회원 금액	57명 / 100만 5천원		
2015년 해지회원 금액	53명 / 137만 5천원		
회원 가입 최다 월	1월		10명
회원 가입 최소 월	9월		0명

<기간: 2015.01.01 ~ 2015.11.30>

5.2 회계보고

분류	내용	금액 (원)	%
수입	회비 및 후원금	186,037,800	80.6%
	강연료	1,150,000	0.5%
	도서/인세	3,816,139	1.7%
	연구용역	33,543,906	14.5%
	회원행사	2,020,079	0.9%
	기타(고용지원금,이자수익 등)	4,366,748	1.9%
총계		230,934,672	100.0%

분류	내용	금액 (원)	%
지출	회원행사	3,269,870	1.4%
	급여,보험료	172,905,552	74.9%
	식비 등	9,826,480	4.3%
	지급수수료(cms수수료,이체수수료)	4,209,740	1.8%
	도서인쇄비(도서구입,제본)	600,144	0.3%
	생활,사무용품	749,370	0.3%
	임차료 및 관리비	30,908,690	13.4%
	네트워크 및 통신비	4,677,620	2.0%
	회계비	921,000	0.4%
	출장교통비	86,100	0.0%
	기타(환불 등)	2,657,530	1.2%
	총계		230,812,096

<기간: 2015.01.01 ~ 2015.11.30>



6. 2015년을 보내며

의기양양 모두가 새로운 뜻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작한 2015년이 어느덧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해 힘들다라는 표현이 진부할 정도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거친 한 해였습니다.

어쩌면 2015년은 '살았다'는 동사보다는 '버티었다'는 동사가 더 잘 어울리는 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새사연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회원님들의 성원과 후원으로 올 해 무사히 연구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2016년은 새사연이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 갑니다. 처음에 이 땅에 생활인 기반의 싱크탱크를 계획했을 때, 확산, 의구심, 호기심 등의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의미를 대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날만큼 '잘 해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험한 세상에 곳곳이 버틴 새사연이 고맙고 기특합니다. 이는 동행해주신 분들의 성원과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해냈다고 표현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해봅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올 해 새사연의 수입 중의 80%는 회원님께서 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신념과 옹음을 기반으로 생활인들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는 백번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히 청해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 주십시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성원, 후원, 참여를 통해 같이 걸어가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연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신년의 시작은 새사연 전망보고서로 찾아 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에 뵈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동

